
第18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6月19日(月) 午後2時 開式

第18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 (司會 議事擔當官 李錫和)
-

(14時 08分 開式)

○議事擔當官 李錫和; 지금부터 第18回 서울特別市議會 定例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崔鍾午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崔鍾午; 존경하는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제119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보름만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제18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우리 나라에는 참으로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55년간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음으로써 칠천만 동포의 가슴에 기쁨과 새희망을 심어 주었고, 온 나라를 축제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다 하여 당장 통일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며 총칼을 쟁기로 녹이는 제 일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과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리에 시작된 남북의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과 북의 경제협력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린관계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화해무드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민족이 지구촌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의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8일에는 지방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로이 선출되신 일곱 분의 市議員께서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큰 활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地方自治法수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례회로서 이번 회기 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9회계년도의 결산심사, 추경예산안, 조례안, 후반기 원 구성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각종 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정한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난해의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세심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과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숙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요즈음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과소비심리, 계속 늘어가고 있는 퇴폐업소와 줄지 않고 있는 미성년자 유흥행위,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만 내리면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현실과 심야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차량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선진 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해결책뿐 아니라 시민들의 도덕성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장마철이 찾아옵니다. 한창 마무리 공사중인 지하철공사장과 절개지 등 공사현장과 각종 시설이 집중호우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완벽한 수방태세를 갖추어 시민들이 장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憲法裁判所의 결정에 의해 과외가 허용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예상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규교육의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敎育廳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하루빨리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는 위생상 문제점과 급식공급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두 축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협력과 비판을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여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매우 바쁜 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성심을 다하시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제 18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李錫和; 이상으로 제18회 서울特別市議會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19分 閉式)

○議長 崔鍾午;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8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일곱 분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明英鎬 議員, 朴柱雄 議員, 金東郁 議員, 姜榮元 議員, 白懿宗 議員, 黃好淳 議員, 趙泰鎭 議員님께서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선서는 일곱 분 의원을 대표해서 白懿宗 議員께

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白懿宗 議員; (宣 誓)

○議長 崔鍾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하신 의원들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明英鎬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明英鎬 議員; 용산1지역 明英鎬입니다.

본인은 23년 전 1978년도부터 청년회에서 JC운동을 하다가 지난 1991년도 지방자치 풀뿌리가 시작할 때 기초의원에 출마해서 13표 차로 낙선해 고배를 마시고, 지방자치시대에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용산구청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7년간 예산결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조역할, 450건의 조례안 검토보고 등 여러 가지를, 재직하던 중 2년 전 사직을 하고 용산구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당선해서 초선이지만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오던 중 우리 吳尙俊 전 시의원님의 사퇴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明英鎬입니다.

본인은 모든 게 부족합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옵고, 정직하게 봉사정신으로써 희생을 각오하면서 서울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당선소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朴柱雄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朴柱雄 議員; 존경하는 崔鍾午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원은 지난 6월 8일 재·보궐선거에 즈음하여 동대문 제3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朴柱雄 議員입니다.

본의원원은 1967년도에 동대문 선거구에 전입하여 여태까지 34년간 살아오면서 그 동안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했고, 1991년도 지방자치가 개원되면서 제1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기에도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거쳐, 부의장을 거쳐,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 25개 구 의장단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전국 15개 시·도의장단협의회 수석고문으로서 활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 신분으로서 의회 의원이 할 바와 의회정립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것 정도는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견을 많이 듣고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다음은 마포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姜榮元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榮元 議員; 친애하는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마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姜榮元입니다.

저는 성균관에서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하나의 일익이 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경륜과 힘으로써 쌓아올린 서울시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일하는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정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다음은 마포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白懿宗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白懿宗 議員;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대, 4대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만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이 더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채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민을 위한 목소리라고 한다면 여야가 따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3대·4대 의회활동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제 뜻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다음은 도봉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새천년민주당 金東郁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郁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8일 도봉 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金東郁입니다.

저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 당원이 투표해서 선출된 후보로서, 저희 2만 당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그리고 8만여 선거구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할 젊은 의원입니다.

앞으로 저를 서울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崔鍾午; 다음은 금천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새천년민주당 黃好淳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黃好淳 議員; 존경하는 崔鍾午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저는 금천 제1선거구에서 6월 8일 당선된 黃好淳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4대 때 여러분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5대 때 다시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회가 깊고요.

어쨌든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마지막으로 관악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趙泰鎭 議員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趙泰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관악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趙泰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또 아주 훌륭한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또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저를 아마 이번에 시의회에 보내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잘 피알해서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 주시고, 또 의장님, 시장님 모두가 도와 주셔서 관악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라고 저를 아마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서는 이 자리가 귀중하다, 또 아주 엄숙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을 종로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또 변덕을 떨 줄도 모르고, 또 제 행실을 뼈똥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면서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부족함을 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내 위에 계신 분들, 또 같이 사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사회나, 우리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를 바르게 가는 데 온갖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 저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이도 많 습니다. 잘 도와 주셔서 우리 관악구가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이제 변화하는 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를 여러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좋은 날 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형통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午;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일곱 분 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자존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